

中國式 社會主義로서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

李 民 子

- I. 序論
- II.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歷史的 位相
 - A. 初級段階論 대두과정
 - B. 기타 過渡期論 比較
- III. 初級段階論의 主要內容
 - A. 提起目的: 生産力增大
 - B. 公有制를 基礎로 한 다양한所有制
 - C. 勞動에 따른 分配를 기초로 한 다양한 分配制
 - D. 計劃의 商品經濟
- IV. 分析 및 評價
 - A.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再解釋
 - B. 批判的 마르크스주의에서 科學的 마르크스주의로 轉換
 - C. 初級段階의 階層化와 平等概念
- V. 結論

I. 序 論

1978년 이후로 鄧小平體制는 ‘中國式 社會主義’ 건설을 위해 ‘제 2의 革命’을 시도하고 있다. 鄧이 표방하고 있는 ‘中國式 社會主義’란 무엇이며, 그것은 毛思想과 어떻게 다른가? 鄧小平 정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며, 改革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중국의 改革, 開放 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政治, 經濟體制 변화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중국에서 일어나야 했고, 중국 내에서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社會主義理論과 경제건설을 위한 改革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지는 거의 연구가 안된 상태이다. 이런 연구 상황에서, 추진해 온 정책을 평가하고 가속화하기 위해서 중국은 1987년 13全大會를 통해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을 제시했다. 김하룡 교수는 “13全大會에서 趙紫陽이 黨의 공식체제로 제시한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은 중국이 현재 처하고 있는 역사적 발전단계를 명시함으로써 鄧小平을 중심

으로 추진하고 있는 改革, 開放정책의 이론적 타당성 외에, 이데올로기적 타당성의 근거까지도 확보하고자 했다.”¹⁾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첫째 社會主義 初級段階論 연구를 통해, 중국이 革命期에는 批判的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지만, 社會主義 建設期에는 科學的 마르크스주의를 택하고 있음²⁾을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해석의 변화는 科學的 마르크스주의의 科學性을 실험하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즉 생산력을 초월해서 革命을 성공시켰던 中國이 다시 生産力增大를 통해 社會主義建設을 시도하는 것은 科學的 마르크스주의의 공상성에 대한 反證이라 생각된다.

科學的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資本主義 발전은 생산력을 증대시켜 社會主義 실현의 物的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資本主義를 부정할 프롤레타리아를 생성시킨다. 資本主義의 발전은 곧 그 자체의 붕괴와 함께 社會主義를 잉태하는 것이다. 그런데 社會主義思想의 현실화 과정은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의 공상적 성격을 폭로하는 듯했다. 資本主義 모순분석의 논리적 귀결로서의 社會主義革命은 고도로 발달한 資本主義國이 아닌 半殖民地, 半封建社會라 규정되는 中國에서 성공했다. 즉 中國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의 치열한 투쟁없는 社會主義革命을 성공시켰다. 이 경우, 中國의 혁명을 어떤 근거로 社會主義革命이라 할 수 있는가? 혁명세력이 단지 社會主義를 지향한다고 해서 사회주의건설의 物的 기초도 없는데 社會主義國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가능하다. 이런 질문들과 함께 中國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1) 김하룡, “社會主義初級段階論과 中國의 社會主義,” <아세아연구>, Vol. XXXI, No. 2 (1988), p. 2.

2) 이러한 구분은 엘빈 글드너의 [The Two Marxisms]의 구분을 따른 것으로서 중국의 좌파와 실용주의파의 노선투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는 하부구조 결정론의 경향이 강하고, 생산력 발전을 토대로 역사발전을 설명한다. 반면에 비판적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을 역사의 창조자로 파악하는 主意主義的 경향이 강하다.

시도가 社會主義 初級段階論³⁾이라 생각된다.

둘째 ‘初階論’은 다음에 제시하는 요소들로 인하여 ‘中國式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新概念’(中國의 歷史發展段階論)이라 생각된다.

i) 마르크스와 鄧小平이 처한 사회적 현실의 차이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다른 발전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건설의 출발점은 商品經濟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고, 資本主義가 생산력 증대의 장애물로 된 사회이다. 그러나 中國은 낙후한 商品經濟 단계에서 社會主義革命을 성공시켰다. 따라서 生産力増大의 과제가 社會主義로 전가되었다.

ii) ‘初階論’은 過渡期概念과 다르다. 「물론 私有制와 公有制가 공존하고 商品經濟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같을 수 있다. 그러나 過渡期가 資本主義的 요소의 패지를 통한 社會主義建設을 지향하는 시기라면, 社會主義 初級段階는 역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생산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시기이다.」

iii) 마르크스의 역사분석은 현실 경험적이었으므로, 그가 경험할 수 없었던 社會主義 건설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 속에서 鄧은 中國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社會主義 건설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iv) 中國은 毛澤東 노선에 따라 1957~1976년까지 社會主義 건설을 시도해 본 결과 실패임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셋째 經濟體制改革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中國式 社會主義’를 구체화시켜 보려 한다. 물론 初級段階에서 여러 방면의 改革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經濟的’ 변화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毛時代와 다른 社會主義의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재 中國에서는 理念보다도 經濟建設이 당분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듯하다.

3)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은 중국의 현단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初級段階이기 때문에 취하는 여러방면의 改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中國 특색을 지닌 社會主義 건설의 구체적 내용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初階論’으로 약하겠다.

社會主義 初級段階의 經濟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토론되어야 한다.

첫째 결국 어떤 歷史的 段階가 社會主義인가? 사회주의는 다시 몇가지
 역사적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가? 이러한 구분의 원칙은 무엇인가?

둘째 어떤 역사적 배경이 中國에서 社會主義 初級段階를 提示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가? 中國의 社會主義가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 필연성이
 있는가? 中國이 여전히 社會主義 初級段階에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
 에서 어떤 이론적 문제가 야기되는가?

셋째 무엇이 중국의 社會主義 初級段階의 經濟인가?

넷째 社會主義 初級段階 동안 중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취해져야 하는가?

위의 질문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78년 이후
 改革, 開放政策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社會主義 初級段階論’ 분석에
 초점을 두려 한다. 이를 통해 初階論이 社會主義 建設過程에서 어떤 역할
 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려 한다. 論議는 이 분야에 관한 研究가 미
 흡한 상태이므로 주로 中國에서 발표된 1次 資料를 중심으로 진행하려
 한다.

Ⅱ.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歷史的 位相

A. 初級段階論 대두과정

현재 鄧路線과 毛思想. 마르크스-레닌주의 間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經濟發展方式問題’이다. 鄧路線은 ‘社會主義發展段階論’과, ‘中國式 社
 會主義建設’로 집약될 수 있다. 前者는 毛澤東이 中國의 생산력 발전단계
 에 적합하지 않은 生産關係를 시도함으로써 빚은 오류를 지적하는 근거이
 다. 鄧은 中國은 현재 마르크스. 毛가 제시하지 않은 특수한 단계인 ‘社
 會主義初級段階’에 있다고 전제한다. 그의 改革, 開放政策은 이런 전제에

서 도출된 지도방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後者는 毛의 마르크스주의의 中國의 수용 경험을 계승한 것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中國의 구체적 실재를 결합하여 ‘中國特色을 지닌 社會主義建設’을 목표로 한다.⁴⁾ 이런 맥락에서 鄧小平은 中國 國情에 맞는 新經濟 모델을 탐색하고 있다. 中國式 社會主義 발전과정에서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로서 毛의 新民主主義論이 이론의 1차 비약이라면, 사회주의 건설의 新段階로서 鄧의 初階論은 2차 비약이라 할 수 있다.

現 中國의 지도자들은 經濟改革의 최종목표는 ‘中國의 特性을 지닌 社會主義的 經濟制度的 建設’에 있음을 밝혔다. 이런 최종목표를 위해 市場經濟, 商品經濟, 自律經濟, 開放經濟를 정책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資本主義的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社會主義制度를 발전, 유지한다는 한계 내에서의 선택한 社會主義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런 기본방침으로 인해 現代化建設과 社會主義實現이라는 理念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鄧小平路線은 1978年 11期 3中全會를 출발점으로 하여 農村에서 시작되었고, 1984年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을 통해 都市로 확산되고 있다. 1985年 9月 鄧이 <全國代表大會>에서 행한 연설에 의하면, 11期 3中全會 이후 黨은 모든 工作中點을 社會主義的 現代化建設로 돌렸으며, 4個 基本原則을 고수하면서 生産力 發展에 전념해 왔다.⁵⁾ 이를 통해 볼 때 11期 3中全會는 中國이 産業化를 통해 기존 社會主義體制的 정체성을 극복하려는 시도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1期 3中全會는 改革 開放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4) 즉 鄧小平에 의하면, “중국은 어떤 社會主義를 해야 하는가? ...반드시 마르크스주의를 전지하고 사회주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실재와 결합한 마르크스주의이고, 사회주의도...中國特色的 社會主義이다.” 라고 한다.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鄧小平文選], (1975~1982)(北京:人民出版社, 1983), p. 46.

5)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홍콩: 삼련서점, 1987), p. 107.

*이하 <결정>으로 약칭.

그러면 1978년 이후 鄧路線의 理論的 根據를 제시하고 있는 ‘初階論’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었는가?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은 1987년 13全大會에서 구체화되었지만, 이미 중국내에서 ‘新社會主義 政治經濟學’ 수립을 위해 거론되어 온 내용을 집약한 것이다. 初階論 제출과정을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⁶⁾

1. 1981년 11期 6中全會의 〈歷史決議〉.

中國이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진입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사회주의 제도는 아직 ‘初級的 段階’에 있으며 그것을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함을 인정했다.

2. 1982년 〈12大 政治報告〉

胡耀邦은 “우리 社會主義 社會는 현재 아직 낮은 初級段階에 있으며 물질문명도 아직 발달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3. 1986년 12期 6中全會 〈정신문명건설의 지도방침에 대한 결의〉

“我國은 아직 社會主義 初級段階에 처해 있으며, 반드시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경쟁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라고 밝혔다.

4. 1987년 〈13大 政治報告〉

11期 3中全會以來 추진해 온 改革, 開放政策을 평가하고 가속화시킬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이런 노선의 이론적 근거로서 ‘初階論’을 제시했다.

B. 初級段階論과 기타 過渡期論 比較

中國의 改革派 理論家들은 經濟改革을 “初階論”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中國에서 社會主義 初級段階는 어떤 概念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13全大會 趙紫陽報告에 의하면 두가지 내용을 지닌다. 첫째 中國社會는

6) 玄默, “初階論對中共改革的理論發展意義探究,” <중공연구>, 제21권 10기(1987), pp.16~17.

이미 社會主義社會다. 中國은 반드시 여기에서 이탈할 수 없다. 둘째 中國의 社會主義는 아직도 初級段階에 처해 있다. 반드시 이러한 실재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 段階를 초월할 수 없다.”

社會主義 初級段階는 어떠한 歷史段階인가?

“初級段階는 모든 國家가 社會主義로 진입할 때 거쳐야 하는 최초의 段階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中國처럼 生産力이 낙후되고 商品經濟가 발달되지 못한 조건아래서 社會主義를 建設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특정 段階를 지칭한다. ...이 단계는 사회주의의 경제 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과도시기와 다를뿐 아니라 이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 단계와도 다르다.”⁸⁾ 이러한 개념규정은 社會主義理念을 지키면서 中國의 特殊性을 부각시켜 經濟建設을 하고자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中國은 왜 初級段階이고, 이 段階는 마르크스, 毛澤東의 過渡期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 보면서 ‘初階論’이 中國 社會主義建設의 新概念임을 설명하려 한다.

1) 中國 革命의 特殊性으로 인해 社會主義建設의 출발점이 마르크스가 理論을 제출했을 때와 다르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달한 기초 위에서 社會主義를 建設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반면에 中國은 資本主義 發展段階를 거치지 않고 낙후된 商品經濟社會에서 社會主義革命을 성공시킨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社會主義建設도 中國의 일 수 밖에 없다. 즉 “中國의 社會主義는 半植民, 半封建社會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生産力水準이 선진 資本主義國보다 훨씬 뒤져 있다. 바로 이 점이 中國으로 하여금 반드시 장기간에 걸친 初級段階를 거치면서 여타의 많은 國家들이 資本主義 조건아래서 실현한 工業化, 生産의 商品化, 社會化, 現代化를 실현하도록 결정했다.”⁹⁾ 이런 조건은 中國式 社會主義의 출발점이

7)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國防部總政治作戰部 編, [共匪原始資料彙編] 第58號(臺北: 國防部總政治作戰部, 1987), p. 12.

8) *Ibid.*, p. 14.

9) *Ibid.*, p. 12.

다. 中國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달한 기초 위에 社會主義를 건설한다는 마르크스의 전제와 다를 뿐 아니라 기타의 社會主義 國家와도 다르다. 이러한 中國의 特殊性은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公有制로 社會改造는 빠르고 쉬웠다. 반면에 生産力増大를 부르조아가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社會主義體制下的 임무로 되었다. 따라서 歷史發展에서 新段階가 요구되어졌다고 생각된다. '中國처럼 낙후된 동방의 大國에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발전사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이다.'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中國은 社會主義建設에 있어서 中國式의 發展모델을 탐색중이다. 즉 "교과서에 따라서는 안되고 外國을 따라서도 안된다. 반드시 中國의 國情에서 출발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를 中國의 실재와 결합하여, 實踐속에서 中國의 特色을 지닌 社會主義路線을 개척해야 한다."¹⁰⁾

2) 中國은 1956年 公有制를 完成했으므로, 社會主義 初級段階는 마르크스의 過渡期概念과 다르다. 마르크스의 過渡期概念은 다음과 같다.

“資本主義社會와 共產主義社會의 사이에는 前者를 後者로 革命的으로 變革시키는 시기가 가로놓여 있다. 이에 조응하여 역시 하나의 政治的 過渡期가 있으니 이 過渡期에 있어서의 國家는 프롤레타리아의 革命的 獨裁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¹¹⁾

위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고타 강령비판>에서 공산주의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구분하기도 했다. 따라서 과도기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향하는 과도이기도 하고, 공산주의 1단계로 향하는 과도기를 지칭하기도 한다. 레닌은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로 표현했다.

10) *Ibid.*, p. 13.

11) K. Marx,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Karl Marx &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Moscow: 1970, Progress Publishers), p. 327.

현재 中國의 過渡期概念은 다음과 같다.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의 이행은 반드시 過渡時期를 경과해야 한다. 이 시기는 勞動階級이 政權을 장악한 후 共產主義社會의 初級段階(社會主義社會)의 건립으로 끝난다. 過渡時期의 필요성은 社會主義革命이 결정하는 것이다. 過渡時期는 私有制를 소멸하고 公有制를 확립하는 歷史過程으로서 모든 社會主義를 향하는 國家가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단계다. 이 시기의 현저한 특징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경제성분이 동시에 존재하고 피차 鬭爭함이다. 이 시기의 주요임무는 資產階級과 無產階級 간의 鬭爭이다.”¹²⁾

于光遠에 의하면 社會主義 初級段階는 매우 낮은 발전단계일지라도 더 이상 위의 過渡期는 아니다. 두 歷史段階의 차이는 非公有經濟의 성격의 차이에 있다. 즉 過渡期동안 非公有經濟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변혁과 폐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初級段階에서 資本主義 經濟요소는 社會主義 경제발전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¹³⁾

過渡期와 社會主義 初級段階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生産關係의 차이로서 초급단계는 公有制가 지배적 경향이므로 非公有制의 역할이 過渡期와 다르다. 둘째 過渡期는 모든 나라가 社會主義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 단계이다. 즉 “여러 나라에서의 社會主義의 關係의 발생과 발전의 특유한 제조건은 過渡期의 객관적 필연성까지, 社會主義建設의 일반적 법칙성(프롤레타리아독재수립, 資本主義的 私의 所有의 폐지) 까지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¹⁴⁾ 그러나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모든 나라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는 아니다. 셋째 生産力水準이 다르다. 넷째 過渡期와 初級段階는 主要矛盾(역사적 임무)이 다르다. 즉 初級段階

12) Yu Guang Yuan, "The Economy of The Primary Stage of Socialism," *Social Sciences in China* (Summer 1988), p. 113.

13) *Ibid.*, p. 76.

14) 아발킨, “현대 사회주의의 정치 경제학”(3), <공산권 연구>(1988. 11) 역, p. 113.

의 역사적 임무는 強大 中國 建設을 위한 4個 現代化 建設이다. 반면에 過渡期의 일반적 목적은 革命형성과(making revolution) 改造수행이다. 初級段階에서 다양한 경제적 요소의 공존은 社會主義 생산과 건설에 도움을 주므로 過渡期과 다르다.¹⁵⁾

3) ‘初階論’은 社會主義의 이해에 대한 毛澤東時期와 鄧小平時期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毛時期에는 社會主義와 過渡期을 구분하지 않고 ‘社會主義의 過渡期의 性格’을 강조했다. 그러나 現在 中國은 過渡期은 이미 1956年 社會主義의 公有制 完了로 끝났다고 본다. 따라서 1956年 이후의 時期를 過渡期과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主要矛盾의 차이에 있다. 즉 公有制社會이므로 階級鬭爭은 이미 지배적 경향이 아니라는 것이다.¹⁶⁾

그러던 毛澤東時期의 社會主義는 어떤 내용을 지니는가? 일본학자 山內一男은 ‘社會主義의 過渡的 성격에 대한 中國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즉 ‘社會主義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現代의 질문에 대하여 中國의 독자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社會主義社會는 매우 긴 역사적 단계이다. 社會主義社會는 階級과 階級鬭爭이 존재하고, 社會主義와 資本主義라는 2가지 길의 鬭爭이 존재한다. 生産手段의 所有制에 있어서 社會主義革命 만으론 불충분하다. …社會主義라는 역사적 단계에서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견지하고 社會主義革命을 최종까지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資本主義의 부활을 막고 社會主義를 진행시켜 共產主義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성립시킬 수 없다.”¹⁷⁾

過渡期 概念이 마르크스, 레닌, 毛澤東, 鄧小平을 거치면서 변화한 것은 革命을 성공한 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自國 문제해결의 과정이라고

15) Yu Guang Yuan, *op. cit.*, p. 85.

16) 龔育之, “我國社會主義初級階段的歷史地位和主要矛盾,” <홍기잡지>(1987, [제 22기]), pp. 4~5 참조.

17) 山內一男, [中國社會主義經濟研究序說](동경: 법정대학 출판국, 1972), pp. 67~68.

생각된다. 즉 社會主義建設의 實踐過程에서 過渡期과 社會主義段階의 구분이 명료화되었다고 본다. 위의 고찰을 통해 얻는 결론은 初級段階 概念은 마르크스주의자의 고전적 저작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중국의 독특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初階論’은 公有制이면서 생산력은 資本主義 보다 낙후되어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中國式 社會主義 建設路線이라 할 수 있다. 이런 路線의 대두에는 ‘歷史發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깔려 있다.

첫째 社會主義의 발전은 매우 긴 歷史段階이고, 몇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初級段階 이후의 단계를 高級段階로 칭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社會主義發展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¹⁸⁾라고 한다. 于光遠은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각국간의 차이는 있으나 社會主義 社會를 5段階로 구분한다. 그리고 위의 제 3 단계 중의 제 1 단계가 바로 社會主義 初級段階라 한다. 그러나 이런 단계 구분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생각에 머물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의 初級段階를 2 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¹⁹⁾ 그러면서도 初級段階가 앞으로 몇 단계가 있으며 어떠한 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한다.²⁰⁾ 이를 통해 볼 때 初級段階가 社會主義 발전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 지는 논쟁 중인 것 같다.

둘째 資本主義의 충분한 발전단계는 초월할 수 있지만 商品經濟의 충분한 발전은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²¹⁾ 이는 종래의 資本主義와 商品經濟를 동일시하던 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를 분리시킴으로써, 中國革命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반영한

18) 龔育之, *op. cit.*, p. 2.

19) 于光遠, “重溫馬克思主義創始人關於私有制社會後社會發展階段的理論”(1988, 제 1기), p. 4.

20) *Ibid.*, p. 5.

21) 예컨대, “사회주의는 생산이 고도로 사회화하고 상품경제가 충분히 발전한 기초 위에서 건립해야 하고, 이런 기초위에서만 자본주의에 대해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 발전과정은 초월 불가능하다.” 龔育之, *op. cit.*, p. 3.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毛澤東의 資本主義段階 초월을 설명하고 동시에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을 정당화하는가?

趙紫陽의 발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근대 中國의 구체적인 역사조건아래서, 중국인민들이 資本主義가 충분히 발전된 段階를 거치지 않고도 社會主義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혁명발전문제에 있어서의 기계론이며 右傾的 착오의 중요한 인식근원이다. 반면에 生産力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않고서도 社會主義 初級段階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혁명 발전문제에 있어서의 공상론이며, 左傾的 착오의 중요한 인식근원이다.”²²⁾

이 논리에 따르면, 資本主義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革命을 기대하지 않았던 마르크스는 右傾的 착오를 범하게 되고, 毛는 社會主義 建設期에 左傾的 착오를 범하게 된다. 또 鄧은 社會主義 革命期에 右傾的 착오를 범하게 되어, 生産力中心論에서 있는 鄧의 논리로는 半殖民地·半封建의 中國社會에서 어떻게 社會主義 革命이 승리할 수 있느냐의 난제를 풀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毛·鄧의 주장은 歷史的 段階에 국한되어 생명력을 지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즉 毛理論은 후발국 革命을 해결하는데 적합하고, 鄧理論은 社會主義建設에 적합하게 되므로, 批判的 마르크스주의는 후발국 革命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의 재해석이고 科學的 마르크스주의는 革命후 社會主義과정에 요구되는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 中國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는 歷史的 段階와 社會的 조건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發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後者의 경우는 이제까지 역사적 경험도 없고, ‘마르크스주의 內에 언급도 미약’하므로 정해진 모델이 없다. 따라서 각국이 自國의 상황타개에 적합한 방식으로 建設方式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改革, 開放政策은 革命的 이데올로기였던 마르크스주의에서 탈피하여 近代化와 經濟發展의 이데올로기로써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22) 조자양, <13전대회 보고>, *op. cit.*, p. 11.

고, 냉전적 구조에서 형성된 社會主義體制的 경직성과 단순성을 극복하고 ‘富強, 民主, 文明의 現代화된 社會主義國家’를 건설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初級段階論의 主要内容

A. 提起目的: 生産力増大

毛澤東은 生産力増大보다 혁명정신과 인간의지의의 강조를 통해 社會主義體制를 건설하려 했다.²³⁾ 반면에 鄧小平體制는 生産力을 높여야만 社會主義體制가 견고해진다고 한다. 이것은 다시 生産力이 生産關係의 기초가 된다는 마르크스의 입장으로 회귀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政治決定論에서 經濟決定論으로 변화는 13大 報告에서 지적된 主要矛盾에 반영되고 있다. 즉, “社會主義 初級段階가 직면한 주요모순은 날로 증가하는 人民의 물질, 문화적 수요와 낙후된 社會 生産力 간의 모순이다. 階級鬭爭은 일정 범위내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主要矛盾은 아니다.”²⁴⁾ 따라서 初級段階의 근본임무는 階級鬭爭에서 生産力 發展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면 社會主義 初級段階의 주요모순, 중심임무 확정은 改革推進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첫째 改革의 性質과 目標를 설정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발전은 生産力増大를 위한 것이다.

둘째 改革 是非 評價의 기준을 제공했다. 生産力發展에 유리하냐 여부로 改革是非를 평가한다. 經濟·政治體制 改革은 모두 生産力發展을 위한 것

23) 슈워츠에 의하면 인간의지의와 혁명정신을 강조하는 모택동 사상은 역사발전에서 생산력의 변화와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를 증시하는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와 모순된다고 한다.

B. Schwartz, *Communism and China: Ideology in Flux* (Harvard Univ., 1968) 참조.

24) 조자양, 〈13대보고〉, *op. cit.*, p. 14.

이므로 經濟建設에 봉사해야 의미를 지닌다.²⁵⁾

왜 鄧路線은 生産力을 중시하는가?

첫째 社會主義 社會가 共產主義 社會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은 고도로 발달한 生産力이다. 즉 鄧小平은 社會主義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무엇이 社會主義인가? 무엇이 마르크스주의인가? 마르크스주의는 生産力 發展을 가장 중시했다. 우리가 共產主義를 말할 때 그 함축된 의미는 바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회 생산력의 고도한 발전과 사회 물질재부의 큰 풍부를 요구한다. 따라서 社會主義 段階의 가장 근본 임무는 사회 生産力 發展이다.”²⁶⁾ 마르크스 엥겔스가 보기에 國有化는 기껏해야 하나의 수단, 사회주의에 이르기 위한 제 1 단계에 불과했다. 그들은 國有化를 社會主義와 동일시하거나 社會主義의 유일한 가능성으로 보지 않았다.

마르크스 엥겔스가 이처럼 社會主義의 핵심으로서 公有制라는 生産關係보다도 生産力 水準을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 생각된다. 그들은 私有財産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고도한 발전을 요구한다고 전제한다. 즉, 마르크스는 勞動의 社會的 分業의 결과 私有財産, 國家, 소외된 社會活動을 생산하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勞動分業의 폐지가 요구되며, 이것은 生産力の 고도한 發展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 한편 엥겔스에 의하면, “生産手段의 公有는 계급의 존재가 正義나 平等에 모순된다고 인간이 인식해서가 아니고, 이들 階級을 폐지하겠다는 단순한 의지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경제적 조건들에 의해서야 실현될 수 있다. …계급으로의 분화는 생산의 불충분성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근대적 생산력의 완전한 발전에 의해서 일소될 것이다.”²⁷⁾라고 한다.

25) 龔育之, *op. cit.*, p. 11.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 모든 것은 인민의 근본이익에 적합하므로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생산력 발전에 불리한 것은 과학적 사회주의에 위배된다.” *Ibid.*, p. 12.

26)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p. 46.

27) F. Engels,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Karl Marx & F. Engels Selected Works* (Moscow: Progress, 1970), pp. 424~425.

이처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公有制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生産力 發展이 전제조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물론 中國은 위의 견해와 달리 生産力의 충분한 발전없이 公有制를 확립했다. 그러나 현재 鄧은 다시 生産力 중심으로 돌아가 公有制의 物的 기초를 확보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生産力의 發展없이 社會主義를 지향하는 것은 일종의 유토피아이기 때문이다.²⁸⁾ 이런 맥락에서 鄧노선은 生産力을 기반으로 한 상부구조만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 社會主義는 資本主義보다 生産力을 더 발전시킬 수 있어야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다. 현재 鄧政權은 社會主義를 資本主義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競爭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즉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바로 현재 자본주의보다 높은 生産力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함이다. 社會主義는 貧窮 소멸을 요구한다. 貧窮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더욱 아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바로 점차 生産力을 발전시켜 인민의 물질 문화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이다.”²⁹⁾

따라서 現段階의 中心任務는 生産力增大이고, 이를 위해 ‘經濟體制改革’³⁰⁾이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經濟體制改革’은 ‘社會主義 商品經濟’³¹⁾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社會

28) 엥겔스에 의하면,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마르크스가 유물사관과 잉여가치론에 의해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의 원동력을 프롤레타리아에게서 찾은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달에 의한 생산력 증대라는 물질 기초없는 혁명은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와는 맥락을 달리한다. 鄧小平은 中國 革命을 科學의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완성하려 한다고 생각된다.

29) 鄧小平, *op. cit.*, p. 46.

30) 千光遠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과 그 기본적 특징을 인식함에 있어서 社會主義 經濟制度和 經濟體制的 두가지 개념을 제출한다. 그에 의하면 社會主義 經濟制度란 동일의 발전단계에 있는 각 社會主義國에 공통하는 것이고, 社會主義 經濟體制란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각기 다른 國家와, 같은 국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기에 있어서, 채용하는 구체적 형태이다. 石川俊一, “우광원의 경제논조,” <중국연구월보>, No. 462 (1986. 8), p. 31.

31) 劉國光是 ‘社會主義 商品經濟論’과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은 중국 경제개혁

主義 商品經濟'에 국한하여 중국내 견해를 중심으로 '初階論'의 특징을 살펴 보려 한다. '社會主義 商品經濟'는 다음의 세가지 면에서의 변화를 주내용으로 한다.

첫째 所有制 면에서, 생산수단의 公有制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경제성분을 발전시킨다.

둘째 分配制 면에서, 勞動에 따른 分配를 주체로 하여 資本에 따른 分配까지도 허용하는 다양한 분배방식을 행한다.

셋째 經濟運營 면에서, 計劃經濟와 市場經濟를 병행하여 실시한다.³²⁾

中國 經濟의 改革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현재 중국의 生産力 發展에 적합한 특정한 형태의 생산관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經濟改革이란 기본적인 社會主義制度 내에서 한 모델을 다른 모델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 경제학계에는 '경직된 中國 經濟體制'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2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劉國光을 대표로 하는 견해는 경직된 모델의 이론적 기초를 '自然經濟論'이라 하고, 王琢으로 대표되는 견해는 '產品經濟論'이라 한다.

먼저 劉國光의 견해를 보면, '自然經濟論'이란, 社會主義 經濟를 '원시 공산제 사회와 같은 실물경제' 혹은 商品交換이 존재하지 않는 自然經濟와 동일시한다. 따라서 社會主義 經濟도 價值法則을 이용해서 안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전통적인 計劃經濟體제의 이론적 기초라고 한다.³³⁾

한편 王琢에 의하면, 產品經濟論은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한 공산주의

의 이론적 기초라고 한다. 劉國光, "中國經濟體制改革若干理論與實際問題" <사회과학전선>(1988. 3), p. 1.

32) *Ibid.*, p. 2 참조. 劉武生, [社會主義初級階段黨的基本路線學習講話], (북경: 당안출판사, 1988), pp. 167~169 참조. 유국광은 위 3가지 면에서의 변화를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初階論'에서의 '新經濟 모델'의 특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글도 유국광의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

33) 劉國光, "상품경제의 발전과 경제체제의 개혁," 田中 道雄(해설, 역)<중국연구월보>, No. 470 (1987. 4), p. 14.

단계에서나 실현할 수 있는 ‘計劃的 產品經濟’를 商品經濟를 발달시켜야 할 역사적 단계에 있는 사회에 도입하여 폐해를 발생시켰다. 이것은 產品經濟論을 기초로 한 ‘產品生産의 計劃經濟 모델’이라고 한다.³⁴⁾ 이러한 舊經濟體制 분석의 견해차이는 經濟體制 改革모델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서, 計劃的 商品經濟 概念 이해가 다르다. 즉 商品經濟를 강조하는 견해와 計劃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改革의 목표모델에 대해서도 ‘市場의 간접조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델과 ‘政府의 간접조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델이 있다.

따라서 經濟改革에 있어서 ‘모델의 根本的 改造’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舊經濟體制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新經濟體制 모델을 수립해야 하는가의 구체적 방향성에 있어서는 改革派 내부에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中國의 改革 開放政策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인들³⁵⁾의 변화를 살펴 봄으로써 社會主義에 대한 中國人의 再解釋을 부각시키려 한다.

B. 公有制를 基礎로 한 다양한 所有制

資本家들로부터 生産手段의 물수는 生産力을 고도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국에서는 경직된 計劃經濟로 인해 生産力의 정체를 초래했다. 현 중국의 공유제³⁶⁾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34) *Ibid.*, p. 15.

35) 公有制, 計劃, 勞動에 따른 分配을 지칭한다. 「빈승언, 등소평시대의 중국경제」, 윤영자 역, (서울:비봉, 1987), p. 4.鄧은 위 3요소의 변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초급단계의 경제 개혁은 사회주의에서의 이탈이 아니라 성숙한 사회주의를 위한 수단적 조치로 행해지는 新段階라 한다.

36) 公有制는 크게 全民所有制와 노동군중 集體所有制의 2가지 기본형식 외에 經濟聯合 所有制가 있다. i) 全民所有制: 사회전체 노동인민이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점하는 공유제 형식으로서, 고도의 사회 생산력과 생산 사회화의 객관적 요구에 적응한 것이다. 사회주의 소유제는 궁극적으로 전민 소유제를 지향하나 중국의 초급단계에서는 불완전하다. ii) 集體所有制: 부분적 노동군중

지나친 公有制를 私有制로 보완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社會主義 初級 段階에서 중국 특색의 所有制는 社會주의 公有制가 주도적 지위를 점하는 동시에, 다양한 소유제형식과 경영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非公有 所有는 公有制의 기초를 형성하지 않고, 그것은 社會주의적이지 아니거나, 적어도 완전히 社會주의 성질은 아닌 경제이다. 그러면 社會主義의 핵심이 公有制임에도 불구하고 왜 中國은 個體經濟와 私營經濟를 도입하고 있는가? 중국의 生産力 水準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不均等하다. 따라서 매우 오랫동안 다양한 경제형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이유로 越大越公越好³⁷⁾의 舊觀念 타파는 필연적이 되었다. 生産力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公有制 확대만을 주장한 결과 오히려 生産力의 정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구관념의 타파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所有制 형식의 선택은 主觀的 이상 추구가 아니라 生産力 水準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現狀況을 볼 때 生産力 水準이 불균등하므로 집중과 분산의 다양한 경향이³⁸⁾ 출현한다. 따라서 社會주의 公有制의 우월성의 표준은 公有制의 大小나 高低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公有制 형식이 生産力 發展에 적합하나 여부에 있게 되었다.

둘째 公有制 經濟 단일화의 구조를 타파하여 個體經濟가 상당한 발전을 했고, 다양한 所有制의 동시병존을 확립하고, 상호접촉의 新觀念을 확립

이 共同으로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지배하는 社會主義 公有制 형식이다. 독립 체산제, 손익을 스스로 부담, 자주경영을 실행하므로 전민소유제와 다르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그 所有權을 침범할 수 없다. iii) 經濟聯合所有制: 社會主義 經濟發展 중 출현한 일종의 새로운 社會主義 公有制이다. 그것은 생산발전의 내재적 연관과 객관적 수요에 근거하여 경제적 합리화, 自願互利的 원칙을 위해 취한 형식이다. 전민소유제 기업간의 연합, 전민과 집체, 집체와 집체, 개인소유제 기업간의 연합 등이 있다. 내용상 생산연합, 유통연합 등이 있다. 楊棄, 徐永上, [中國社會主義建設] (북경: 북경항공학원, 1987), pp. 56~68 참조.

37) 크면 갈수록 공유제이면 공유제일수록 더욱 좋다.

38) 즉 사회화, 집중화 정도가 비교적 높은 대생산은 전민소유제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고 분산화된 소생산은 개체 혹은 사영경제가 적합하다.

했다.

셋째 所有權과 經營權이 분리 가능한 新觀念을 확립했다. 이것은 기업 활력 문제의 關鍵이다.³⁹⁾ 이러한 변화는 生産力 水準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 위와 같은 舊觀念 타파의 결과 발생한 社會主義 所有制 관념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니는가? 중국의 所有制 改革의 주요한 것은 중국의 현상화에 부합하도록 全民所有制 改革의 실행이다.

全民所有制 중 어떤 것을 고치느냐는 중국의 실제에서 출발하여, 生産關係가 生産力의 객관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公有制 외에 다양한 所有制를 허용하는 것은 社會主義란 개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改革 전에 社會主義는 생산수단의 公有制에 강조를 두었으나 현재는 생산력증대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온 私有制의 도입은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심지어 資本主義化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즉, 個體經濟의 발전이 중국경제를 건국초기 사회주의 공유제가 아직 절대적 우세를 점하지 못한 過渡時期로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社會主義 經濟制度를 동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⁴⁰⁾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중국 이론가들은 다음 3가지의 이유로 위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여전히 社會主義 經濟임을 주장한다.

첫째 현재의 個體經濟는 과도시기의 독립적 소유제 형식이 아니라, 公有制가 절대 우위를 점하는 조건하의 사회주의 경제의 부속 혹은 보충적

39) 劉國光, “개혁 이래 우리나라 경제이론의 약간의 중요한 발전”, pp. 10~11. 다양한 소유제가 필요한 이유를 중국의 상황과 결부시켜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소개하면, 石仲泉,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다양한 경제성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홍기>(1987. 제22기), pp. 14~15 참조.

40) 이에 관해 于光遠은 ‘體制’와 ‘制度’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즉 “현재의 경제 개혁은 제도의 개혁은 아니고 체제의 개혁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기본제도는 생산력 발전에 적합하므로 반드시 이를 견지해야 한다.” 石川仙一, *op. cit.*, p. 37.

소유형식이다.⁴¹⁾

둘째 비록 個體經濟 발달이 자발성과 맹목성을 떨 수 있으나, 국가는 행정관리 개별지도를 통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

셋째 個體經濟 성분이 중국 모든 경제중에서 점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예컨대, 1983년 개체경제 소유의 공업 생산액은 전국 공업 생산액의 단지 0.1%만을 점했다. 따라서 그것의 발전은 중국 전체 경제제도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⁴²⁾ 물론 위의 이유들이 아직까지 중국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改革의 출발점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로 個體所有를 인정해야 하는가는 문제로 남는다.

또한 中外合資企業 발전과 外國商人이 독자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함이 資本主義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中國이 對外開放을 실행하고, 中外合資企業을 발전시키는 목적은 사회주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우리의 자력갱생 능력을 증강하기 위함이고, 국가주권을 상실하고 완전히 외국자본에 의존한 舊中國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한다.

社會主義 初級段階의 所有制는 마르크스주의에 비추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가 共產主義 社會의 특징으로 公有制를 제시했을 때 公有의 범위는 資本에 국한되고 있다. “共產主義의 고유한 특징은 所有一般의 폐지가 아니라 ‘부르조아적 所有’의 폐지에 있다. 즉 사람들은 그 자신이 자기노동의 결실로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財產에 대한 권리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⁴³⁾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私有될

41) 따라서 초급단계의 소유제는 과도기와 다르다. 현재 비공유경제는 국가가 도와서 발전한 것이고 반드시 일정 범위내에서만 존재한다. 공유제와 비공유제 간에는 대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石仲泉, *op. cit.*, p. 16.

42) 孫連成, 梁初鴻, [中國特色的 社會主義研究] (浙江: 浙江人民出版社, 1987), p. 65.

43) K. Marx & F. Engels, “The Communist Manifesto,”

Karl Marx &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p. 47.

즉 잉여가치 착취를 제거하는 것이 마르크스가 공유제를 제시하는 목적이었으므로, 개인적 노동 생산물이 타인의 노동을 지배하는 힘을 지니지 않을 때

수 있다는 것과 대규모 資本의 公有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사유제의 존재를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所有制 改革은 社會主義體制로부터의 이탈이라기 보다는 毛時代의 정직된 모델을 개조하기 위해 동구의 개혁경험을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⁴⁴⁾ 현재 投資資本의 확대를 위해, 획득한 이윤을 투자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추세가 어느 정도에서 멈출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 부분적 資本所有 허용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반면에, 階層化를 유발하여 社會主義 理念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도 하다. 도입된 資本主義的 요소는 社會主義的 성격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따라서 資本主義的 경제요소 도입은 社會主義 경제를 생기있게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존재를 위협할 수도 있다.

C. 按勞分配를 기초로 한 다양한 分配制

現 中國은 初級段階에서의 分配制는 노동에 따른 분배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분배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毛時代의 平均主義와 대조를 이룬다. 이런 맥락에서 鄧의 平均主義 비판을 보면 “初級段階에서는 生産力의 増大가 가장 중요한데 平均主義는 노동력의 적극성을 속박하고 인간의 분투를 방해해서 중국 경제발전에 소극적 결과를 초래했다.”⁴⁵⁾고 한다. 鄧路線은 勞動에 따른 分配가 社會主義的 分配制란 근거를 마르크스에서 찾는다. 마르크스 역시 <고타강령비판>에서 共產主義 低級段階에서는 勞動에 따른 分配, 共產主義 高級段階에서는 能力에

는 허용했다.

- 44) 중국의 경제개혁은 시장 메카니즘의 이용으로 사회주의체제의 결함을 보완한다는 면에서는 소련 동구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舊中國에서 지니고 뛰어 넘었던 근대화 저해요인의 극복이라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지닌다. 毛里和子씨는 개혁의 원인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직화에서가 아니라 비경제적, 제도적 요인에서 찾는다. 그는 공업화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개혁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형가리 개혁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上原一慶,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동경: 청목서점, 1987), p. 5~7.

- 45) 劉國光, “改革以來我國經濟理論的若干重要發展”, <紅旗>(1987. 16기) p. 13.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분배한다고 했다. 따라서 毛의 平均主義는 최종 단계인 共產主義社會에서야 실현 가능한 것을 사회주의 건설기에 실시하려 했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마르크스의 平等概念은 分配의 平均主義가 아니라 勞動에 따른 分配를 통해 잉여가치 착취의 소멸이다. 여기서 勞動에 따른 分配는 개인의 노동능력, 노동공헌의 차별을 승인하고, 노동보상, 수입의 차별을 승인하므로 平均主義와 다르다.”⁴⁶⁾ “平均主義思想은 勞動에 따른 分配 원칙을 시행하는데 심각한 장애이며 平均主義의 범람은 필연적으로 生産力을 파괴한다.”⁴⁷⁾

그러면 社會主義 社會가 일차적으로는 勞動에 따른 分配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中國內에서는 公有制와 生産力 수준을 이유로 제시한다. 첫째 생산수단의 公有制 하에서는 어떤 사람도 타인의 노동성과를 점유할 수는 없다. 둘째 生産力 발전수준상 분배형식에 있어 必要에 따라 分配할 수는 없고, 生産力을 촉진해야 하므로 勞動에 따른 分配가 적합하다.⁴⁸⁾ 여기서 勞動에 따른 分配의 역할은 i) 노동자의 적극성을 유발하여 生産力을 發展, ii) 社會主義公有制 發展, iii) 企業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平等의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즉 노동에 따른 분배는 共產主義 1段階의 分配制와 일치하는데,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平等權은 내용상 하나의 不平等權임을 폭로하고 있다. “平等性이란 측정이 동일한 기준, 즉 勞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인간의 能力은 차이가 있으므로 平等權이란 동등치 못한 勞動에 대해서는 不平等權이다. 즉 모두는 한 사람의 勞動者일 뿐이므로 平等權은 어떤 階級的 差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不平等한 개인적 기여에 따른 不平等한 生産能力을 하나의 自然的 特權으로 암암리에

46) *Ibid.*, p. 13.

47) [中國年鑑 1985], *op. cit.*, p. 73.

48) 楊棄, 徐永上, *op. cit.*, p. 160.

인정해 버린다.”⁴⁹⁾ 따라서 階級差別을 소멸하려는 社會主義 역시 완전한 分配의 平等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마르크스도 위의 差別은 共產主義 1段階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했다. 왜냐하면 權利란 결코 그 해당 社會의 經濟構造 및 그에 의해 규정된 문화적 발전수준을 넘어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내에서는 일시적인 階層化 현상을 당연시하고 있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일부 사람들을 격려하여 먼저 부유하게 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발전법칙에 부합하며 전체 사회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⁵⁰⁾라고 함으로써 平均主義를 고수하여 모두가 빈곤한 것 보다는 部分的 差別을 감수하고라도 生産力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趙紫陽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실제 이익 분배에 있어서 平均主義를 극복하고 合理的인 差別을 인정해야 하며 일부 사람들이 근면한 勞動을 통하여 먼저 부유하게 됨을 장려하여 生産力發展을 촉진하는 것이 전사회적 공동부유라는 목표실현에 유리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한다.

中國에서 階層化를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個人收入의 원천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한다. 個人收入은 3가지로 구분된다. i) 勞動收入, ii) 經營收入—여러 경영효과와 관련된 개인수입이 포함된다. 경영자의 수입은 일종의 노동수입이지만 경영효과의 대소는 노동량 외에 위험부담 이익이 포함된다. 따라서 勞動에 따른 分配 외의 分配原則이 작용하게 된다. iii) 資金과 資產에 의한 收入—개인이 저금, 대부, 주식, 자산 운용으로 얻은 利益으로서 勞動에 따른 分配原則 이외의 원칙이 작용하게 된다.⁵¹⁾ 이러한 다양한 分配制度 共存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生産力 發

49) K. Marx,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op. cit.*, p. 320.

50) 趙紫陽, “1987년 제 6기 전인대 공작보고,” 〈人民日報〉(1987.4.13), 〈중소연구〉(1987, 여름), p. 226.

51) 劉國光, “사회주의는 평균주의가 아니다,” 〈北京週報〉(1987.9.29), 강인덕編, *op. cit.*, pp. 138~139.

展에 도움을 주고 公有制를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위의 個人所得에 관한 설명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社會主義의 색채를 입히려 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즉 “일부 同志들은 私營企業主 집단이 資產階級이 아니고 小資產階級, 半資產階級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며, 私營企業主가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으로부터 얻은 所得을 經營所得, 危險所得, 投資所得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所得에 社會主義의 색채를 입히고자 고심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일이다.”⁵²⁾

이처럼 勞動에 따른 分配原則 이외까지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生産力増大를 위해 최대한 資本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즉 “만약 資產에 의한 利益의 획득을 제한한다면 所有者는 자기 資產을 個人消費로 충당할 것이므로 오히려 社會에는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⁵³⁾

한편 鄧小平에 따르면 “社會主義가 勞動에 따른 分配原則을 따르는 것은 貧富의 과대한 격차를 만들 수 없고, 兩極分化도 발생할 수 없다.”⁵⁴⁾ 고 한다. 여기서 兩極分化 概念은 王若望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개념의 첫째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王에 따르면 兩極分化는 i) 階級的 착취가 형성하는 富益富, 貧益貧, ii) 각자의 勞動이 상이한 價値를 창조하는데 따르는 차이로 구별된다. 中國은 현재 후자만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는 합리적 분배형태이고, 이것까지도 兩極分化라 한다면 社會主義社會에서는 장기간 兩極分化가 존재할 것이라 한다.⁵⁵⁾ 따라서 위 견해를 종합할 때 中國은 勞動에 따른 分配로 인한 階層化는 인정하지만, 착취에 기반을 둔 階級分化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많은 富豪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부르조아계급이라고 불러서는 안

52) 陳頤,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사회분화와 계급 계층제도 논함,” <중소연구>(1988. 겨울), p. 200.

53) 劉國光, “사회주의는 평균주의가 아니다.” p. 140.

54)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p. 47.

55) 王若望, “양극분화에 대한 나의 견해,” 강인덕 編, [중국주요논문선집](서울: 국동문제 연구소, 1988), p. 604.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社會主義社會에서 육성된, 먼저 풍족하게 된 선구자들인 것이며, 마르크스가 규정한 ‘資本家’ 개념과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⁵⁶⁾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이것은 증명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資產階級の 存在 自體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일부 부문에서 일정수의 노동자를 고용한 私營企業 중에 점차 새로운 資產階級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意義가 있는 일이며 전반적인 상황에 부합되는 일이다.”⁵⁷⁾ 이처럼 資產階級の 存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階級分化和 資產階級 存在有無가 아니라 社會, 經濟, 政治生活에 있어 資產階級の 地位를 파악하는 것이 社會主義의 방향의 부합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初級段階와 私有制社會의 資產階級은 다른데 그 구별은 양자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자가 처한 社會環境에 있다고 한다.⁵⁸⁾

어쨌든 共同富裕을 위해 일시적 階層化가 정당화된다고 할 때, 그 기간이 長期化되고, 階層化 정도가 심해질 경우 鄧路線을 공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物質的 자극을 통한 生産力 増大가 가장 효율적인 段階에서는 階層없는 共同富裕은 풀 수 없는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人間의 完全한 平等實現이라는 유토피아는 실현가능한가?

56) *Ibid.*, p. 606.

57) 陳顯, *op. cit.*, p. 200.

58) *Ibid.*, p. 200.

初級段階의 사회환경은 다음 3가지로 지적된다.

- i) 公有制가 주도적 지위를 점하므로 자산계급의 일부존재는 사회주의 경제를 동요시킬 수 없다.
- ii) 計劃的 商品經濟이므로 자산계급의 경영활동은 사회적 생산과 생산수단 사유 간의 모순을 초래할 수 없다.
- iii) 私有制 하에서 資產階級은 생산수단 소유자, 생산과정의 조직, 관리자, 국가의 통치자이지만, 초급단계의 자산계급은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자는 아니다.

Ibid., pp. 200~201 참조.

D. 計劃的 商品經濟

마르크스에 따르면 商品經濟는 分業과 私有制의 산물이다. “生産手段의 共同所有를 토대로 한 협동적 사회 내에서는, 생산자들은 그들의 생산물을 교환하지 않는다.”⁵⁹⁾ 이런 맥락에서 毛澤東 時期에는 고도로 計劃的인 經濟體制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蘇紹智에 따르면 經濟改革 이전에 計劃經濟를 市場經濟와 대립적으로 놓아, 商品經濟를 제거하려 하고 計劃經濟와 명령적 계획을 동일시한 것은 도그마라고 한다. 이런 도그마하에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모든 경제활동을 행정적 명령을 통한 계획된 범위로 하려 하고, 반면에 市場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이것은 計劃에 의한 主觀的 需要와 客觀的 條件사이의 큰 차이를 야기시켰다. 그 결과, 生産은 소비자의 需要를 만족시키는 대신에 생산물의 심각한 저장과 물질의 공급부족, 낭비를 초래했다.”⁶⁰⁾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計劃的 商品經濟이다. 여기서 計劃的 商品經濟란 생산부문들이 相對的으로 獨立된 經濟主體이다. 相對的 獨立이란 社會主義國家가 社會全體의 경제발전의 방향을 파악하고 거시적인 면에서 결정을 내리며 計劃을 작성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곧 사회의 생산은 計劃만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計劃주도하의 市場원리에 의한 조절도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⁶¹⁾

현재 중국에서 商品經濟 도입은 社會主義 경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 변화가 깔려 있는 듯하다. 첫째 計劃經濟의 실행과 價值法則의 운용, 商品經濟의 발전은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라 통일적이므로 이들을 대립시키

59) K. Marx,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op. cit.*, p. 319.

60) Su Shaozhi, “Prospects for Socialism: China’s Experience and Lessons,” in Milos Nicolice (Ed.), *Socialism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Verso, 1985), p. 203.

61) 林子力, “사회주의 학설과 그 실천,” 강인덕 編, [중국주요논문선집](서울: 국동문제연구소, 1988), p. 28.

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社會主義, 資本主義 경제의 구별은 상품경제의 존재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所有制의 상이함, 擄取階級的의 존재여부, 어떠한 生産目的에 기여하는가, 商品關係의 범위차이 등에 있다.⁶²⁾

그러면 왜 社會主義도 商品經濟가 必要하고, 그 역할은 무엇이며, 資本主義 商品經濟와 어떻게 다른가?

첫째 인류사회는 그 경제형식에 따라 3개의 다른 發展段階를(즉, 自然經濟, 商品經濟, 產品經濟) 거친다.⁶³⁾ 위의 사회경제발전은 生産力의 發展水準이 결정하는 것이다. 自然經濟는 產品經濟에 필요한 社會 生産力을 창조할 수 없으므로 직접 產品經濟 형식으로 진입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경제형식 중간에 반드시 중간계단으로서 商品經濟가 있어야 한다. 즉 生産力 增大를 위해 社會主義에도 商品經濟가 필요하다.

둘째 公有制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소유제형식이므로 商品經濟가 필요하다. 즉, 全民과 集體, 個體 所有制 企業은 모두 相對的 獨立의 경제실체이고, 生産수단과 노동력의 다른 所有者이므로, 商品交換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產品을 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經濟利益을 보장할 수 없고, 그들이 生産手段의 所有者임을 부인하는 것과 같이 된다.⁶⁴⁾ 勞動者와 企業의 관계에서,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화폐를 기업에 지불하고 소비품을 구입한다. 형식상 이것은 等量勞動의 교환이다. 내용상 노동력의 個人所有制가 존재하고, 각 기업은 모두 독립적 상품생산자와 경영자이므로, 이것은 일종의 商品交換이다.⁶⁵⁾ 그러나 勞動力的 商品化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잉여가치 착취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셋째 19세기와 20세기 商品經濟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사회주의 商品經濟의 원인을 다양한 所有制에서 찾는 것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62) [中國年鑑 1985], *op. cit.*, p. 71.

63) 위 3경제의 특징은 楊棄, 徐永上, *op. cit.*, pp. 74~76 참조.

64) *Ibid.*, p. 79.

65) 肖灼基, “論生産商品化,” 〈사회과학전선〉 1988. 제 2기, p. 2.

노동력의 상품화가 지닌 한계를 벗어나려는 것으로 商品經濟 존재이유를 ‘交換’의 역할로 국한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즉 “商品經濟의 진정한 원인은, 私有制에 있지 않고, 다른 질의 노동이 직접 측정될 수 없고, 社會가 다른 종류의 노동수요에 대해서 직접 이해하고,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다.”⁶⁶⁾

이를 통해 볼 때 公有制 사회라도 기업마다 경제이익의 차별이 존재하므로 개인은 어떤 기업에 속하느냐에 따라 생활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개인의 능력의 차이로 인한 差別도 발생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公有制를 기초로 하는 社會主義 商品經濟 건립은 다른 상품생산자 간에 共同의 물질적 이익이 있음을 결정했다. 그러나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는 상품생산자들은 각자 特殊한 물질적 이익이 있다. 경제영역중 商品關係의 보편화는 商品 生産者 利益의 差別性을 승인할 것을 요구 한다.”⁶⁷⁾ 이처럼 상품 생산자의 物質의 利益의 差別性을 인정함은, 경제활성화에 유리하고 적극성, 창조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라 한다.

현재 중국의 計劃的 商品經濟는 自然經濟나 產品經濟와 구별되고, 無計劃的 商品經濟와도 구별된다.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商品經濟를 구별하는 중국내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基礎의 차이로서, 資本主義는 私有制 기초 위의 無計劃的 商品經濟에서 건립되었으므로 고용의 착취관계를 반영하는 반면에, 社會主義는 公有制 기초 위의 計劃的 商品經濟이므로 자주적 연합노동자의 평등한 無搾取의 合作關係를 반영한다.

둘째 生産目的의 차이로서, 公有制 社會의 生産目的은 노동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반면에 私有制 社會의 生産目的은 價値의 增殖이다.

셋째 計劃的 商品經濟는 私有制와 無計劃的 商品經濟 내부 모순 발전의

66) 林子力, “社會主義經濟及其初期發展階段,” <중국경제체제개혁>(1987. 10 기), p. 20.

67) 肖灼基, *op. cit.*, p. 2.

필연적 결과이므로 계획적 상품경제는 사유제의 상품경제보다 고급의 형식이다. 계획적 상품경제의 발전은 商品經濟를 소멸하도록 할 것이다.⁶⁸⁾

이를 통해 볼 때 양체제의 구별요소는 所有制의 차이로 집약될 수 있다. 한편 생산목적을 통해 볼 때 社會主義는 人民의 消費를 위한 生産이 강조되고 資本主義는 資本蓄積을 통한 확대재생산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처럼 생산력 발전이 시급한 단계에서, 사회주의국은 당분간 生産力 增大를 위해서 資本主義的 방식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결론에 이른다. 사실상 누구를 위한, 어떤 目的을 지닌 생산이냐로 두 體制를 구분하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이 있고, 명확한 구분이라 할 수 없다. 즉, 국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산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 무력하다.

한편 中國의 商品經濟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中國의 經濟改革은 현재는 소목의 改革에 머무르지만, 한층 市場의 대폭적 도입을 계획한다면, 거기에도 역시 맹목적인 생산이라는 市場經濟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한다.⁶⁹⁾

그러나 보수적 개혁파의 대표자인 陳雲도 社會主義에는 計劃經濟와 市場 조절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주요부분이고, 후자는 종속적이지만 필요한 부분이라 한다.⁷⁰⁾ 于光遠 역시 社會主義 制度下에서 商品經濟는 노동에 따른 분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 특징이라는 이론을 긍정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상품생산은 제한할

68) 楊棄, 徐永上, *op. cit.*, pp. 85~86 참조.

사회주의 경제의 생산목적에 관한 현재 중국내 견해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경제도 여전히 상품경제의 형식을 취하므로, 잉여산물은 가치형식을 취해 표현되기 때문에, 직접 생산목적은 잉여산물가치를 취득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종 생산목적은 사회주의 생산자료 공유제가 결정하는 바이므로, 全社會 인민의 물질, 문화생활 수요를 만족시킨다.”

69) 馬洪, 「社會主義制度下的我國商品經濟的再探索」, p. 9. 石川 俊一, *op. cit.*, p. 38 재인용

70) 陳雲, “계획경제와 시장의 제문제,” 강인덕 編, *op. cit.*, p. 301.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야 한다.⁷¹⁾ 결국 毛 死後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계획 경제의 비실용성 문제를 인식하고 시장메카니즘을 탐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社會主義의 이론적 우월성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버린 것은 아니고, 또한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버린 것도 아니다. 시장메카니즘은 보다 유동적인 계획유형과 국가지도의 틀 내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IV. 分析 및 評價

A.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再解釋

鄧小平은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思想을 어떻게 재해석하여 그의 노선을 정당화하는가?

鄧이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은 毛澤東이 1937년 〈矛盾論〉에서 말한 ‘實事求是’⁷²⁾이다. 즉 “實事求是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세계관의 기반이며,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 기반이다. 과거 우리가 革命을 한 모든 승리는 實事求是에 의해 획득된 것이다. 현재 우리의 4개 현대화 실현도 마찬가지로 實事求是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毛思想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만약 실제의 정황에 맞지 않을 때에는 생명력을 상실한다.”고 함으로써, 그것의 是非는 실천 속에 던져져서 현실의 검증 받을 때 비로소 증명됨을 명백히 했다.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思想의 계승인 동시에 중국 현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鄧路線은 중국 혁명기의 毛

71) 石川 俊一, *op. cit.*, p. 37.

72) 毛澤東의 實事求是 概念: “‘實事’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말하고 ‘是’란 객관적 사물의 내적 관계, 즉 법칙성을 말하는 것이며 ‘求’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國內外, 省內外, 縣內외의 실제적 상황에서 출발하고...고유한 법칙성을 도출함으로써 변화하는 주위 사물의 내부적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毛澤東選集〉,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9), p. 759.

의 中國의 社會主義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회주의 건설기의 毛의 오류를 비판한다. 또 마르크스-레닌이 제시하지 않은 社會主義 建設의 新段階論을 제시할 수 있었다.

中國의 현재 마르크스주의 이해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i) 科學的 社會主義 이론의 해석과 실천이다. ii) 사회주의 실천은 社會發展段階를 초월할 수 없다. iii) 과학적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기초 위에서, 모든 國家가 社會主義를 실현함에 있어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모델을 택하느냐는 모두 자기의 國情에서 출발한다.

B. 批判的 마르크스주의에서 科學的 마르크스주의로 轉換

社會主義 建設 과정에서 치열한 노선투쟁의 역사를 가진 중국 상황을 고려할 때, ‘初段階’은 과거 실용주의파의 정책노선을 반영한 것으로서 毛의 社會主義 建設路線과의 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鄧路線은 批判的 마르크스주의에서 科學的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⁷³⁾ 즉 經濟主義의인 관점에서만 볼 때 社會主義革命을 기대할 수 없었던 中國에서 革命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批判的 마르크스주의가 강조되었다. 반면에 社會主義 革命이 성공하고 經濟發展의 필요가 인식되면서 科學的 마르크스주의 경향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중국에서 社會主義 社會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毛澤東 노선은 批判的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社會主義 社會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實用主義 노선은 科學的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73) 물론 우리는 한사람의 특정한 마르크스주의자를 ‘단 하나의’ 批判的 또는 科學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각각의 특정한 이론가는 항상 양쪽의 차원이 혼재된 상태에 있고, 양차원에 각각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론가들은 일정한 기간 중에는 과학적 또는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자의 차원 가운데 어느 하나에 깊은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엘빈굴드너, *The Two Marxisms*, 김흥명 譯, [타시즘: 비판과 과학](서울: 한빛, 1984), p. 193.

고 하겠다.⁷⁴⁾

批判的 마르크스주의는 미성숙한 物質的, 社會的, 經濟的 조건들을人間이라는 행위자, 인간의식, 희생과 용기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강조함으로써 보상하려 한다. 반면에 科學的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의지나 의식보다도 生産性과 生産水準의 발전을 강조한다. 즉 의지나 동기보다도 技術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思想性보다는 專門性을 중시한다.⁷⁵⁾

批判的 마르크스주의는 후발국에서 혁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즉 科學的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경제적 저발전은 필연적 후진성으로 규정되나, 批判的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는 후진성은 혁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된다.⁷⁶⁾

그러나 意志中心論과 政治決定論을 강조하는 毛思想은 中國革命期에는 적합했지만 社會主義建設에 있어서는 생명력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社會主義建設이란 所有制度에 있어서 公有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生産力이 사회주의적 상부구조를 실현할 정도로 증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革命이 쉬울수록 社會主義로 가는 길은 어렵다’는 문제가 중국에도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鄧은 ‘生産力論’ ‘經濟建設論’을 강조하는 科學的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毛를 비판하고 있다. 毛思想의 핵심이 意志中心論 農村主義, 平均主義라면, 鄧思想의 핵심은 生産力中心論, 都市發展, 實績主義라 할 수 있다. 毛와 鄧의 社會主義建設路線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毛 路 線

生産關係 변화를 통해 生産力 변화
階級鬭爭 강조

鄧 路 線

生産力 發展을 통해서 社會主義建設
經濟建設 강조

74) 서진영,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과 그 변화방향,” [이데올로기 비판특강](2), (부산대 통일문제 연구소, 1986), p. 60.

75) *Ibid.*, p. 62~66. 참조.

76) 즉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부르조아 계급은 강해지고 다른 계급들의 의식에 대한 그들의 해게모니는 강화되어 그들로부터 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반면에 자본주의가 덜 발전한 사회는 부르조아 계급을 전복시키는 것이 쉽다.

平均主義

勞動에 따른 分配

市場經濟와 計劃經濟를 대립시킨

市場經濟는 計劃經濟에 보완적 역할을 함

公有制만을 허용

公有制를 기초로 다양한 所有制 허용

急進主義(理念 강조)

實用主義(經濟建設 강조)

이러한 社會主義 建設方式의 차이는 社會主義 概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毛澤東의 社會主義 社會는 어떤 사회인가? 毛時代에는 사회주의 사회를 정의하면서 私有制의 철폐와 無產階級專政의 수립과 같은 구조적 요건과 함께, 모든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와 사회주의적 도덕과 가치의 정립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노동자와 농민,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억제하고 共同富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⁷⁾ 한편 鄧小平路線이 지향하는 社會主義 社會의 특징은 12大報告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⁷⁸⁾ 1) 착취제도 소멸 2) 생산수단 公有制 3) 노동에 따른 분배 4) 計劃的 商品經濟 5) 工人階級 勞動人民의 政權 6) 최종적으로 고도로 발전한 생산력과 자본주의보다 높은 노동 생산물 7) 사회주의 정신문명

C. 初級段階의 階層構造와 平等概念

初階論의 가장 큰 변화는 階層化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내에서도 改革 10년의 결과 사회분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資產階級까지 형성되고 있다고 시인한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첫째 생산력의 낙후로 인하여 私有制와 公有制 共存이 장기간 불가피하므로 階級分化和 資產階級의 존재역시 불가피하다. 둘째 노동에 따른 분배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 구성원의 소득에 필연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私有制社會와

77) “闢私批修是 無產階級文化大革命的 根本方針,” 〈人民日報〉(1967. 10. 6)

78) 趙曙, “사회주의 특징의 재인식,” 강인덕 編, *op. cit.*, p. 115.

의 차이는 社會主義 社會는 公有制社會이므로 階級關係는 더 이상 기본적인 사회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階級關係는 階層關係로 대체되었다. 社會主義 社會의 階層은 다음의 특성을 지닌다. “社會主義 社會의 階層은 생산수단 公有制의 조건하에서 대체로 동일한 勞動性格, 勞動方式의 勞動者들로 형성된 職業集團이며, 각 직업집단은 노동성격, 노동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經濟的 所得, 社會의 名望, 生活方式를 갖는다.”⁷⁹⁾

사회활동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階層化는 平等概念을 變化시켰다. 현 중국은 기회의 平等은 인정하나 結果의 平等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 즉 “平等은 출발점에서의 平等(기회의 平等)과 結果의 平等(平均的 分配)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初級段階는 平均的 分配를 실시 할 수는 없고 단지 기회의 均等を 부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平等이다.”⁸⁰⁾라고 한다. 이런 개념 정의에 기초해서 기존의 平等觀念을 비판하고 있다. 첫째 平等을 사람들 사이의 수익분배, 생활상의 처우의 均等으로 간주하는 것은 平均主義 관점이고 실물경제의 산물이다. 둘째 평등을 모든 사람의 지위가 동등하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小資產階級의 평등관념이다. 셋째 平等을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공상적 사회주의이다. 科學的 社會主義에서는 生産力이 階級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을 때, 사회 전체에 절대적 平等을 실현하는 것을 공상으로 간주한다.⁸¹⁾

이처럼 ‘生産力 增大’가 階層化를 유발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生産力 增大’의 동기를 競爭을 통한 우승열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人間은 經濟的 人間(economic man)이라는 가정이 숨어 있다. 따라서 ‘生産力 增大’와 ‘平等’이 共存하기 위해서는 生産力 增大

79) 陳頤,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사회분화와 계급 계층제도를 논함,” p. 203.

80) *Ibid.*, p. 205.

81) 李君如,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평등관념에 대한 이론,” 〈중소연구〉(1988, 겨울) pp. 206~207.

의 동기가 변화해야 하고, 더이상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生産力이 發展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만 發展과 平等을 동시에 지향하는 共產社會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現實일 수 있다.

V. 結 論

本 論文은 ‘初階論’ 연구를 통해 鄧小平 노선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 보고자 했다. 또한 ‘初階論’을 기초로 진행되고 있는 改革, 開放政策이 ‘中國式 社會主義建設’의 시도임을 살펴 보려 했다. 이를 요약하면, 中國의 改革, 開放의 원인(鄧路線 출발시 특수성)은 i) 근대화를 거치지 않은 후견성 ii) 文革을 통해 형성된 政治的 저항집단과 經濟的 정체 iii) 生産力水準에 맞지 않는 社會主義 建設方式의 경직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科學的 社會主義 견지라는 구호아래 商品經濟 방식을 도입하여 生産力 증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新歷史發展段階論과 毛時代와 다른 社會主義 경제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초급단계는 ‘政治的 過渡期’와는 구별되지만, 共產主義社會 建設의 준비기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과도기라 생각된다. 즉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요소가 發展이라는 目標하에 긴장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初階論’은 社會主義 사회가 資本主義的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사회주의 이념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임을 설득하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經濟改革의 정당화에 국한될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은 經濟改革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파급될 효과에 있다. 즉 政治的 민주화에 대한 자극, 黨의 기능과 역할의 약화는 共產主義體制的 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면 鄧小平 路線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순환이론’이 역시 적용되어 理念을 강조하는 反轉이 있을 것인가? 현재 社會主義 建設에 대한

路線 차이는 紅專의 대립이 아니라, 改革 自體의 인정 속에서 정도와 속도에 관한 견해차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經濟建設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反轉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經濟建設에 필요하다면 社會主義 자체도 탈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鄧小平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社會主義 견지나 혹은 資本主義 길을 걷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만일 資本主義를 택한다면 中國의 약간은 부유해질 수 있으나 90% 이상의 生活富裕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社會主義를 견지해야 한다.”⁸²⁾ 이러한 社會主義 견지의 강조는 장기적으로 理念實現을 위한 反轉의 맹아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反轉이 어떤 형태를 띠 지, 中國이 어떤 社會主義社會로 수렴될 지는 미래에 맞겨 둘 수 밖에 없다.

初階論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첫째 初階論이 中國의 社會主義임을 명확히 하려면 동구 소련의 經濟改革과 比較를 통해 차이점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中國내에서는 初階論의 정당성(中國 상황에 적합한 理論)을 주로 毛澤東의 社會主義 建設 路線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初階論 대두 이유는 될 수 있어도, 初階論이 中國의 최선의 발전의 길임을 증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改革 開放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통해서, 初階論이 중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中國式 社會主義와 서구 복지국가에 비슷한 사회모형을 향해 수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初階論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현재 中國의 딜렘마는 經濟發展을 위해 改革을 강화하면 할수록 지향해온 社會主義 理念을 위협할 수 있는데, 동시에 理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82)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p. 108.

는 經濟가 發展해야 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鄧은 生産力을 강조함으로써 歷史發展段階의 순서는 바꿀 수 있지만, 건너뛴 수는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발전 후의 社會主義 革命과, 社會主義 革命 후 資本主義 方式을 도입하여 生産力을 발전시키는 것 中 어떤 길이 효율적인가? 鄧의 科學的 마르크스주의로의 회귀는, 발전전략으로 社會主義 革命을 지향하고 있는 제 3 세계 혁명세력에게 어떤 의문을 던지고 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중국내 견해는 다음과 같다.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화된 생산력은 확실히 사회주의 사회의 물질적 기반이다. 그런데 이것은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사회주의 혁명의 발생과 승리의 유일한 요소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화된 생산력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최종적 결정요인일 수는 있어도 유일한 요인은 아니고,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어떤 나라에서 승리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사상적 조건과 문화적, 역사적 조건, 국내적, 국제적 조건 등의 여러 조건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⁸³⁾

83) 段若非,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 이론과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강인덕 編, *op. cit.*, p. 52.